"씨알 굵어 손맛 짜릿해요" 지난 2일 밤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공업 앞바다에 몰린 갈치낚시배와 강태공들. 목포와 영암 앞바다는 요즘 밤마다 낚싯배가 내뿜는 수은 집어등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영암=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물반 갈치반' 목포는 불야성

영암호~삼호중 앞바다 강태공 하루 600여명 몰려

가족·친구들과 밤새 갈치 낚시 '은빛 추억' 만들기

지난 2일 밤 8시. 영암군 삼호읍 영암호 방조제와 삼호중공업 앞바다는 60여 척의 낚싯배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수은 집어등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뤘다.

검은 바다의 수면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은빛 갈치'가 어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한 불빛에 반사되면서 어선 주변은 온통 은빛으로 뒤덮였다.

10t급 뉴수영호 양편에는 20여명이 낚싯대 2~3대씩을 바다에 드리우고 갈치 낚시를 하며 짜릿한 손맛을 만끽하고 있었다. 40~50㎝ 크기의 갈치들이 은빛 몸을 퍼덕이며 연거푸 낚싯줄을 따라 올라왔다. 한쪽에서는 낚시에 열중하느라 정신이 없고 다른 쪽에서는 방금 낚아올린 싱싱한 갈치회를 떠먹느라 시끌벅적하다.

김경일(42·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는 "반짝이는 은빛 갈치를 낚아 올리는 손맛이 너무 짜릿하고 막 잡아올린 갈치를 즉석에서 회로 먹는 재미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와 영암 앞바다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은빛 갈치떼를 잡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강태공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이곳을 찾고 있다. 이들은 밤새도록 갈치와 씨름을 하며 초가을 '은빛 추억'을 만들고 있다.

밤부터 다음날 해뜰 무렵까지 강태공들이 잡는 갈치는 많게는 50~60마리, 적게는 20~30마리다.

이곳 갈치 낚시는 8월 초순 시작돼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10만 명 이상의 낚시꾼들이 몰린다. 요즘에는 평일 300여 명, 주말과 휴일에는 600여 명이 찾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어선에 낚싯대와 미끼가 준비돼 있어 따로 낚시 채비를 할 필요가 없고, 초보자들도 입질 수심 층을 확인해 공략하면 하룻밤에 수십 마리를 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바다 낚시와 달리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 멀미 걱정도 없어서다.

특히 밤바다의 선상낚시는 낭만적이다. 갈치 낚는 손맛도 짜릿하지만, 밤바다를 환하게 밝힌 어선에서 바라보는 항구도시의 야경이 사뭇 이국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목포와 영암 앞바다를 찾는 강태공들의 숫자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경기불황 탓과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갈치의 양의 많이 줄어서다.

황모찬(36) 뉴수영호 선장은 "갈치 낚시의 절정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어서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작년에 비해 낚시꾼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 어장도 잘 형성되고 씨알도 굵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어 갈치 낚시하기에는 최고 적기"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해 집회시위 1만3,406건…1998년 이후 최다

경찰백서, 5대범죄도 최고

지난해는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집회가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도 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집회시위 건수는 1만3천406건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집회 건수는 2000년 1만3천12건, 2001년 1만3천83건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만~1만1천건에 머물렀지만 작년에는 1만3천건을 훌쩍 넘겨 '국민의 정부' 이후 가장 많은 집회가 열렸다.

2007년(1만1천904건)과 비교하면 집회 횟수는 12.6% 증가했고, 참가자는 308만여명으로 32.4% 늘어났다.

이는 5월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8월까지 열렸고 화물연대, 건설노조 운송거부 등 대규모 노사분규도 연속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1999년 이후 최대치인 54만4천527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가로수가 불쌍해. 철제 받침대 제거해 주세요"

광주 초·중학생들 "우리도 주민"

구청 홈피에 불편사항 민원 제기

"어린이 놀이터 시설 수리해 주세요."

"가로수가 불쌍해요. 철제 받침대를 제거해 주세요."

광주지역 초·중학생들의 순수한 반란(?)이 시작됐다.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3일 광주지역 5개 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초·중학생들이 각 구청 홈페이지에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 내용도 다양하다.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달아달라는 것에서부터 인근 상가와 원룸주택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구 등이 지저분하니 치워달라는 내용 등이다.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자신을 '광주 운천초교 3학년 최수호'라고 밝힌 최군은 "가로수가 바닥에 덮인 보호 철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으니 치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밝힌 15세의 한 민원인은 "북구 용봉동의 한 어린이 공원의 시설이 파손돼 있으니 수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겼다.

초·중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각 구청은 답변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어린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한 구청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어린 학생들까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구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 원료 5억원대 횡령"

수산물 가공업체 수사

강진경찰, 3명에 혐의

강진의 유명 수산물가공업체가 농협의 김 원료 수억원 어치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진경찰은 3일 강진 G농협의 김 원료 5억여원 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가공업체 C사 대표 김모(43)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농협이 매입한 김 원료 수억원 어치를 몰래 빼내 판매한 뒤 빈 상자만 쌓아두는 수법으로 농협 관계자들을 속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김 원료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C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C사는 대형할인점에 즉석 김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한때 연매출이 10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이 무산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잠적한 김씨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정확한 횡령 규모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공사현장 금품 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광주지법 징역 8월 선고

공사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사이비기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공사현장에서 찬조금과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남 모 일간지 간부 최모(5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지만 사기, 공갈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 여수시 율촌면 여수-순천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광주·전남 공사현장에서 33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안 해상 40대 선원 사망

3일 오후 3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북동쪽 1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목포선적 8t급 안강망어선 S호 선원 김모(45·목포시)씨가 그물을 끌어올리다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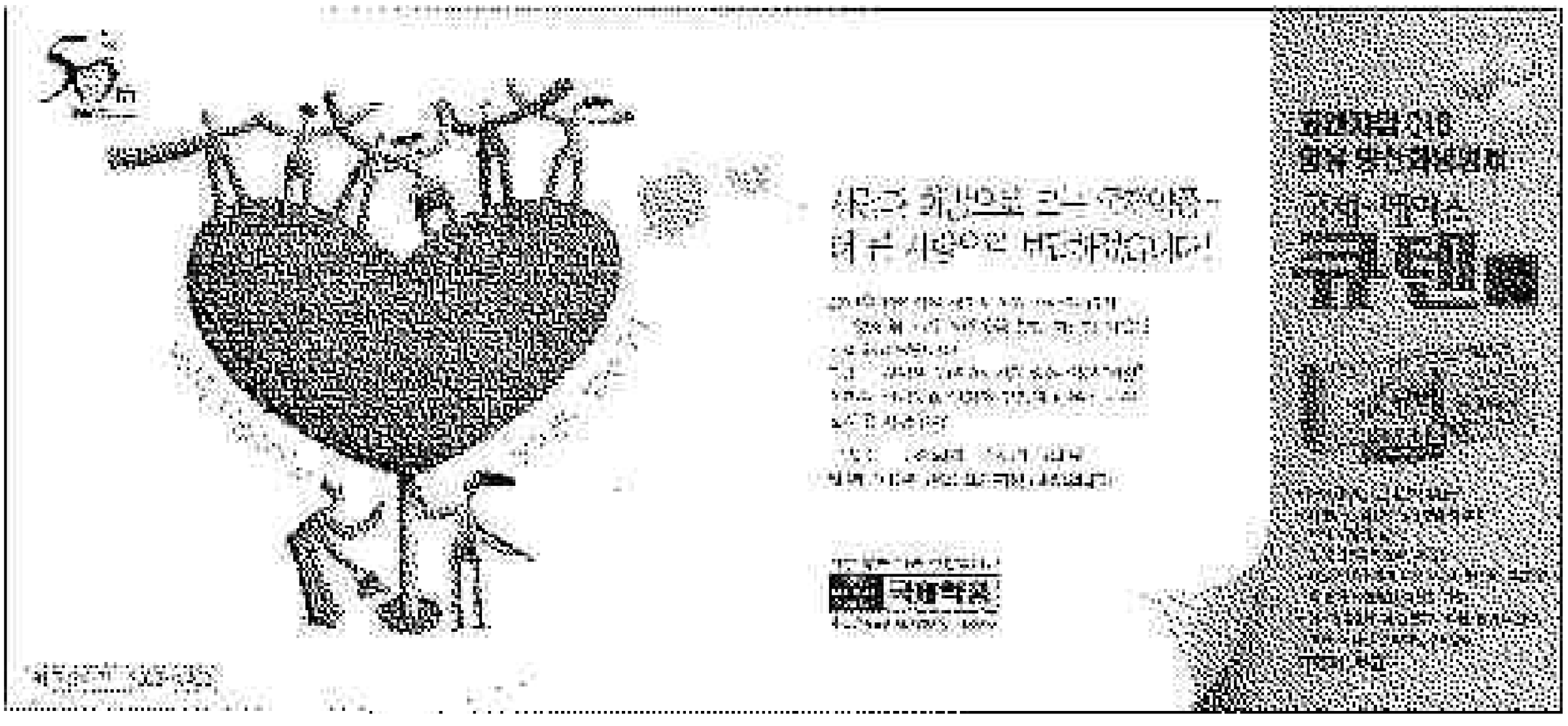
목포해경은 김씨의 손이 기계에 끼인 뒤 몸까지 끌려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부인 흉기로 찌르고 "강도야" 신고

쌍나팔

○…부인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이튿날 의식을 회복한 부인이 "남편의 짓"이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광주광산경찰은 3일 부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김모(3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인 광주시 광산구 L아파트 1~2층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 A(37)씨의 복부를 1차례 찌른 뒤 "강도가 들어 아내가 다쳤다"고 신고했다는 것.

○…김씨의 진술이 수차례 뒤바뀐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끝에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 화가 치밀었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